

나는 왜 ‘여성’이 되었는가 — 박완서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1978)론—

한 경 희*

요약

본고는 박완서의 두 번째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에서 주인공 진이가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의 주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서 ‘행위주체성’을 제시한다.

『목마른 계절』의 서사는 ‘자연’과 ‘역사’라는 두 가지 시간을 통해 구조화된다. 진이는 이 두 시간 중 자연의 시간을 통하여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진이가 여성으로 변모하게 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역사의 시간이다. 진이는 성적으로 성숙할 나이가 되어서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1950년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부장제로 들어가 ‘여성’이 된다. 한국전쟁 당시의 여성들은 자신의 아버지나 오빠, 남편이 국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만 스스로를 국민으로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의 시민권은 가부장제에 의해 보장되므로, 진이는 가부장제에 저항한다거나 가부장제의 바깥을 지향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이는 주체성을 포기한 것일까? 이와 달리 진이는 가부장제에 속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물이다. 본고는 이러한 ‘전략적 타협’으로부터 진이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진이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있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려고 하며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더 잘 통제하려 한다. 이에 진이는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더 많은 물질·인적·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고자 한다. 진이이게 있어 시민권 획득을 위한 가부장제로의 진입 역시 이와 같은 행위주체성(agency)의 확대 수단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여성, 국민, 시민권, 가부장제, 행위주체성, 한국전쟁

목
차

1. '억압과 저항'을 넘어서
2. '자연'이라는 인공의 시간
3. 국민이 되기 위해 '여성'이 되다
4. 행위주체성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타협
5. 결론

1. '억압과 저항'을 넘어서

박완서가 평론가 및 대중들에게 '여성 문제'를 다루는 소설가로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나무』 등단 이후 거의 10년 뒤의 일이었다. 1980년에 발표한 중산층 여성의 이혼 과정을 다룬 『살아있는 날의 시작』이 큰 대중적 호응을 얻은 것을 계기로 박완서는 여성의 삶을 '문제적'으로 다루는 작가로서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의식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1980년대 중후반 여성해방문학 담론장이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 '여성해방문학'을 주제로 발간된 『또 하나의 문화』 제3호에서 조혜정은 박완서 및 다른 여성 작가의 작품들을 다룬 평론 『한국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를 발표한다. 조혜정은 박완서가 당대 다른 여성 작가들과 비교하였을 때도

가장 여성 의식이 뛰어난 “철저한 리얼리즘”의 작가이며, 박완서의 소설이 “남성 우월의식과 이중가치, 주부의 반복적 일상생활, 남애 선호가 낳은 가슴앓이, 성적 폭행, 당당하게 살고자 하는 여성과 가부장적 환경 간의 치열한 투쟁 등의 주제를”¹⁾ 다루는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평가한다. 뒤이어 여성사연구회가 박완서 소설의 여성 의식을 또 다른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글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을 내놓는다. 1988년 『여성』 2호를 통해 발표된 이 글에서 김경연·전승희·김영혜·정영훈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전체 모순구조 속에서 여성억압을 파악하는 작품이 올바른 여성문학이라는 확고한 입장 하에, 박완서 소설의 여성 의식을 규명한다. 이 글의 필자들은 자본주의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녀의 성별분업을 조장한 상황을 여성문제로 고정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소외된 노동에 종사하고 여성은 전업주부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 상황을 여성문제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페미니즘 비평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박완서는 ‘여성 문제’로 재현해야 할 것들을 재현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인식의 관습 차원에 불과한 것들을 ‘여성 문제’로 잘못 재현했다고 비판되었다.

이와 같은 박완서 소설에 대한 초창기 페미니즘 비평은 각각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시작되었다. 이 두 입장은 여성, 여성문제 및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사연구회’ 간의 ‘박완서 논쟁’이다. 1988년 여성사연구회의 비평이 발표되고 3년 뒤 조혜정은 1991년 봄호 『작

1) 조혜정,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 『여성해방의 문학』, 평민사, 1987, 41면.

가세계』에 평론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은 무엇인가』를 발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 여성사연구회의 전승희가 1991년 여름 호 『창작과 비평』에 『여성문학과 진정한 비판의식-조혜정씨의 시각이 지닌 문제점』을 발표한다. 『박완서 문학에 있어 비평은 무엇인가』에서 조혜정은 기존 박완서 비평들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한다. 기존 비평들은 박완서가 여성 작가이자 대중소설 작가이기 때문에 역사 의식의 깊이를 갖추지 못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전개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해왔는데, 조혜정은 이러한 평가가 남성중심적 시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조혜정이 이 글에서 말하는 남성중심적 시각이란 남성들의 경험을 보편적 경험으로 여성의 경험을 개인에게 국한된 특수한 경험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틀이다. 조혜정은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이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여성 고유의 경험과 역사가 있기 마련이며, 이 역시 실재하는 또 다른 사회적 영역임을 주장한다. 조혜정은 박완서가 이 영역을 소설을 통해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박완서의 역사의식이 얕다거나 사적인 경험만을 중시한다는 평가는 부당하다고 본다. 조혜정의 페미니즘에서 여성은 남성과 대립되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갖는 동질적인 집단이다. 그리고 여성의 주체성은 남성 집단의 억압에 대해 저항 의식을 갖는 것으로부터 구성된다고 이해된다.

전승희의 『여성문학과 진정한 비판의식-조혜정씨의 시각이 가진 문제점』(1991)은 위 평론의 전제들에 대해 꼼꼼하게 반박하고 자신이 가진 여성해방문학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평론에서 전승희는 성적 지배가 아닌 자본의 지배가 사회의 기본 억압이며, 성적 지배는 자본의 지배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성은 단일한 이해관계와 욕망을 가진 집단이 아니며, 상이한 계급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된

다. 또한 여성의 주체성은 자본주의에 직접적으로 억압당하는 위치에 놓인 여성 즉 기층여성으로 일컬어지는 노동계급 여성만이 발휘할 수 있는 저항 의식으로 상징된다.

여성과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입장은 공통적으로 여성을 사회구조적 피억압 집단으로 범주화한다. 따라서 이 두 입장에서는 한 명의 여성 개인의 저항도 집단적 주체성의 발현으로 여겨진다.²⁾ 1990년대 이후 박완서 소설의 여성 의식에 대한 연구는 더욱 풍부해지는데, 이때의 연구들에서도 여성은 피억압 집단이라는 범주로서 이해되며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여성의 주체성이 발휘된다고 전제된다. 그러나 억압의 내용이 1980년대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변화를 처음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평론이 권명아가 1994년과 1998년에 발표한 두 편의 박완서론 「박완서 문학 연구 - 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1994)와 「박완서-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1998)이다. 이 두 평론에서 여성은 '확일성'을 강요하는 사회구조 때문에 개별성을 주장하지 못했던 개인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성의 주체성은 확일성에 대한 저항 즉 고유한 개별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때 발휘되는 주체성은 1980년대와 달리 집단적 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다.

2000년대 및 2010년대의 박완서 연구에서 여성은 개별성을 억압당하는 개인들이라기보다는 욕망을 억압당하는 개인들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으로 김윤정의 「박완서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수행성을 중심으로」(2012)를 들 수 있다.

2) 이선옥은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으로 대별되는 두 입장의 대립이 여성의 주체성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두 입장은 논쟁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성이 복합적일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선옥, 「1980년대 여성 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43호, 2018, 26-27면.)

이 논문에서 여성문제는 여성성에 대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 여성 개개인이 품고 있는 욕망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다.³⁾ 이와 같은 입장에서 여성의 주체성은 금기를 위반하는 데서 발현된다고 이해된다. 신수정의 논문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동대문시장의 젠더정치학과 전후 중산층 가정의 균열』(2016)에서 상정되는 여성의 주체성이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가정주부라는 이상화된 여성성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망을 억압해왔던 중산층 가정주부가 그 금기를 깨고 동대문 시장에서 마음껏 소비를 하는 장면을 여성의 주체성이 발휘되는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다.⁴⁾

박완서 소설에 대한 현재의 페미니즘 비평 및 연구들은 여성의 주체성 연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이 본질로서 주어지는 정체성이 아니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여러 요인들이 서로 교차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⁵⁾ 또한 여성이라는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어도 여성 의식을

3)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수행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 신수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동대문시장의 젠더정치학과 전후 중산층 가정의 균열』,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1호, 2016. 이외에도 여성의 주체성을 금기의 위반에서 찾는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김은경,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양상: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55호, 2010; 최선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자본주의 양상과 극복의 가능성』, 『현대소설연구』 제51호, 2012;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 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의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1호 등. 또한 금기의 위반을 통해 욕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면서도 타자와의 상생과 공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여성 주체성의 윤리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정희, 『오정희·박완서 소설의 근대성과 젠더 의식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미영, 『박완서의 성장 소설과 여성 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연구』 제25호, 2008; 김윤정, 위의 논문 등.

5) 그 예로 정미숙의 『박완서 소설 『서 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박완서의 장편소설 『서 있는 여자』가 공간에 따라 여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새로 구성되고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정미

갖게 되는 시점 및 주체성을 발휘하는 양상이 상이하다는 데 착안하여 새로운 개념적 모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처럼 남성 집단의 억압, 계급적인 억압, 개성의 억압, 욕망의 억압에 의해 여성이 구성된다고 보는 것은 한 사회에서 여성을 구성해내는 여러 사회적·문화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 하나의 요인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억압과 저항'의 틀에서 여성은 모두 동일한 사회조건 하에 놓여 있는 집단으로 단일하게 범주화되며 여성의 주체성은 저항으로써만 발휘된다고 여겨진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이론가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모한티는 종속성과 저항성을 공유한다고 가정되는 여성이 현실 세계의 여성이 아닌 담론적 구성물이며, 담론적 구성물로서의 여성을 현실 세계의 여성과 동일하게 여길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⁶⁾ 여성들은 계급, 민족, 젠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안에서 위치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서 여성들이 갖는 이해 역시 복잡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종속성과 저항성만을 여성 집단의 특성이라고 볼 경우, 특정한 지역적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집단으로서 여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서술하는 데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⁷⁾

본고는 이와 같은 방법론적 반성을 바탕으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주체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박완서 소설의 여성 주체성은 집단적인 억압이든 개인적인 억압이든 억압에 대한 저항을 통해 발휘된다고 암묵적이지만 매우 공고하게 가정되어 왔다. 그런데 저

숙,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 연구』 제17권 1호, 2016) 교차성 개념을 통한 여성 정체성의 이해를 제안하는 논문으로는 이선옥의 논문이 있다. (이선옥, 앞의 논문, 2018.)

6)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 『경계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2005, 43면.

7) 위의 책, 55면.

향을 통해 구성되는 주체는 필연적으로 가부장적 권력 밖에 위치해야 한다. 혹은 적어도 가부장적 권력의 바깥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박완서 소설에서 여성의 주체성은 가부장적 권력 '내'에서 발휘된다는 특이성을 지닌다. 이러한 박완서 소설의 특징을 주목한 바 있는 연구로 배경열의 『여성의 정체성 찾기 - 박완서 작품론』(2007)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박완서 소설의 여성 인물들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는 무거운 짐을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는 짐으로 기꺼이 끌어안고 살고 있으며, 이 끌어안음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동화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맞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한다.⁸⁾ 본고 역시 박완서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이 가부장적 권력 안에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기꺼이 머물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특징을 기존의 '억압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을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박완서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결국 순응하고 타협하고 포기했다는 '한계'를 지닌 이들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본고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주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첫 단추를 『목마른 계절』에서 꿰고자 한다. 가부장적 권력의 바깥을 지향하지 않고 그 속에 머물고자 하면서도 그 권력의 논리에 스스로를 동일시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순'으로 인해 '나'는 '여성'이라는 지금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받는다. 박완서의 『목마른 계절』은 이 명령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8) 배경열, 『여성의 정체성 찾기 - 박완서 작품론』, 『한국학논집』 제34집, 2007. 배경열은 박완서 소설의 여성 인물들이 자기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관계'를 기꺼이 만든 장본인이며, 그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관리하는 데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속에서 결코 조화롭게 살지는 못하고 항상 불화감을 안고 사는데, 배경열은 이 부조화로부터 반성적인 자의의식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위의 글, 63면.)

다. 『목마른 계절』은 작가가 20살 때 겪은 한국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로, 작가가 이 당시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소설이라고 흔히 설명된다.⁹⁾ 본고 역시 이 소설이 현재의 ‘이야기 하는 나’와 과거의 ‘이야기되는 나’라는 이중적 서술시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본다. 그러나 이 소설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의도로 쓰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보류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이야기 하는 나’를 서사의 전면에서 노출시키지 않는 대신, 진이라는 허구의 여성 인물을 ‘이야기 되는 나’로 두고 진이의 시점을 서술 시점으로 삼아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 방식이 현재의 ‘이야기 하는 나’가 과거의 사건 시점으로 ‘회귀’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현재의 ‘이야기 하는 나’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시점으로 끌어 올려와 가상의 시공간 안에서 추체험한다.¹⁰⁾ ‘이야기 하는 나’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기 위하여 자신의 과거 기억을 취사선택한 후 압축적으로 재구성한다. 따라서 『목마른 계절』은 과거를 다시 현재화하는 ‘재현’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복원’과는 다르다.¹¹⁾

9) 임규찬, 『박완서와 6.25체험-『목마른 계절』을 중심으로』, 『작가세계』 제47호, 2000;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국어국문학』 제133호, 2003;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4호, 2007; 김정은, 『박완서 전쟁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김영미,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서울에서의 한국전쟁 체험의 의미 - 『목마른 계절』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4호, 2018.

10) ‘이야기 하는 나’와 ‘이야기 되는 나’의 개념은 최지영의 논문 『자전적 이야기의 시점과 그 언어적 실현』에서 가져왔다. (최지영, 『자전적 이야기의 시점과 그 언어적 실현』, 『독어학』 제31집, 2015.)

11) 최지영은 기억이나 회상은 현재 ‘이야기 하는 나’가 선택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현재 진행 중인 상상이라는 점에서 ‘이야기 되는 나’의 시점에 입각한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사실 그대로 충실하게 재생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위의 논문, 186-187면.)

본고가 『목마른 계절』이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과거의 ‘재현’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소설이 지나간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이 본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야기 하는 나’는 자신이 왜 ‘여성’인지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재구성하여 추체험함으로써 자신의 ‘모순’을 이해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너는 왜 여성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과정에서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가 삶의 향방을 정하는 데 있어 무엇을 제일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드러난다. 본고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박완서 소설의 여성 인물의 주체성을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한다.

2. ‘자연’이라는 인공의 시간

1978년 수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박완서의 두 번째 장편 소설 『목마른 계절』은 1971년 7월부터 1972년 11월까지 『여성동아』에서 연재된 『한발기』를 원작으로 하는 소설이다. 『한발기』 및 『목마른 계절』은 6월부터 시작하여 7월, 8월, 9월과 같이 달 별로 분장되어 서사가 구성된다. 원작인 『한발기』에서는 피난지 교하에서 서울 수복 소식을 듣는 4월로 서사가 마무리되며, 개작된 『목마른 계절』에서는 서울 귀환 후의 5월로 서사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목마른 계절』의 5월은 서사 전체로 놓고 볼 때 부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4월부터를 결말 부분에 포함시켜도 크게 무리는 없다. 서사가 달별로 진행된다는 점은 『목마른 계절』이 사건 전개에 있어 시간의 물리적 변화 그 자체를 중시함을 시사해준다. 『목마른 계절』은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여성 인물 진이의 시점을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되고 그 의미가 규명되지만, 사건 그 자체를 발발하게

만들고 진행시키는 것은 진이가 아니라 시간의 물리적 흐름인 것이다.

그런데 『목마른 계절』에서 서사를 진전시키는 시간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하나는 몸이라는 물질이 변화함에 따라 각 개인들이 겪는 자연의 시간이다. 탄생 이후 성장하고 노화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몸이 겪는 비가역적인 변화의 시간이 바로 자연의 시간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들 혹은 집단들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전개됨으로써 사회가 변화하는 역사적 시간이다.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시간은 진이라는 여성 인물에게 겹쳐짐으로써, 진이는 사건 진행의 중심에 놓인다. 자연의 시간은 20살부터 21살이라는 성장과 생식의 적정기로서 진이의 몸에 내재하여 흐르며, 역사의 시간은 1950년 6월부터 1951년 4월까지 인민군에 의해 서울이 두 차례에 걸쳐 점령되었던 특정 시기의 모습으로 진이의 신변을 둘러싼다.

이 일 년 남짓의 시간은 진이의 일생 전체에 있어서는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진이로 하여금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만든 결정적 사건의 시간으로서 묘사된다. 그러나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는 이 두 가지 시간을 위계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그 중요성에 차등을 주고 있다.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는 자연의 시간을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의 시간보다 더 본질적인 시간이라고 상정하고 서술을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연의 시간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여성'이라는 정체성 탄생에 있어 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서사를 짜는 것이다.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가 역사의 시간이 아닌 자연의 시간에 진이를 여성으로 성장하게 하는 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목마른 계절』의 첫 부분인 6월과 마지막 부분인 4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짧고도 날카로운 시선의 만남, 그 선명한 회상의 단편이

자기만의 것이라는 걸 왠지 참을 수 없다. 혹 자기가 잘못 본 거라면 또 모를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

“저어……, 저 몰라보시겠어요? 졸업식날 뵈던 것 같은데 향아하고 같이 계셨죠?”

“몰라보다니? 이름까지 외고 있는데. 하진. 어때? 이만하면 됐나? 아직 내 기억력만은 자신 있어.”

무뚝뚝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어쩔 그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어쩔…….”

진이는 조금 반갑고, 아직도 좀 섭섭했다.

“알은체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차차……, 이 내 정신 좀 봐. 구면의 아가씨에게 하는 인사를 하마터면 깜빡 잊을 뻔했군.”

한 손으로 제 무릎을 탁 치며 수선을 떨더니 서서히 팔을 벌려, 멍청하게 앉아 있는 진이를 반향할 겨를도 없이 난폭하게, 그러나 능숙한 몸짓으로 끌어안고 불을 자기 입술로 지그시 누르고 나서 놓아준다. 일순의 일이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와의 접촉은 일순에 지나가 버리지 않는 무엇을 남겼고, 진이는 그 무엇으로부터 민첩하게 자기를 수습하지 못해 한동안 멍했다. 따끔한 턱과 부드러운 입술이 잠시 불에 닿았을 뿐인, 극히 단순한 접촉에는 황홀한 기쁨이 있었다. 그건 전연 예기치 않은, 새로운 감각의 각성이었다.

준식의 무심한 동작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관능이 비장되어 있었고, 그 날이 드디어 진이의 감각의 생경한 걸쭉질을 찌른 것이다.

그녀는 뒤늦게야 얼굴을 붉히며 발딱 일어섰으나 창피하게도 호흡이 고르지 못했다. 아릿한 아픔이 곁들었으면서도 비할 나위 없는 쾌미감의 여운은 아직도 싱싱하고 강렬하여 그녀는 거의 질식하고 말 것 같았다. 그녀는 신기한 듯이 별령 누워 있는 준식을 굽어본다.¹²⁾

위 인용은 『목마른 계절』의 첫 장인 6월에서 발췌한 것으로, 전

12)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12, 20-21면.

쟁이 발발하기 며칠 전 진이가 대학 교정에서 민준식을 만났을 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다. 민준식은 앞으로 한국전쟁 동안 진이의 애인이 될 인물로, 고교 졸업식 때 단짝 친구 향아의 약혼자로 소개받았던 바가 있다. 대학 교정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민준식은 진이에게 갑자기 키스한다. 진이는 민준식을 만나기 전까지 “까만 스커트에 흰 포플린의 블라우스”, “목둘레를 조이는” 단정한 것, “완강히 다물어져 있”는 입으로 묘사되어왔던 것처럼 자신의 몸 혹은 욕망을 엄격하게 절제하고 단속해왔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진이의 성격은 “예쁘지 않은 얼굴”, “초라한 면직 블라우스 밑의 깡마른 어깨”¹³⁾, “교태를 거부”하는 입과 “야무진 목소리와 냉담한 눈매”과 같은 묘사에서 유추될 수 있듯이 여성성이 없는 무성적인 몸으로 체현되었다. 자신의 욕망을 엄격하게 절제하고 통제하는 모범생으로서 항상 긴장한 상태로 딱딱하게 살아왔던 진이는 민준식을 만나고 그와 접촉하면서 “날카롭게 날이 선 관능”에 의해 “감각의 생경한 걸쭉질”이 찢어진다. 그리고 찢린 틈새로 진이의 내부에 그간 억압되어왔던 “관능”, “황홀한 기쁨”, “감각의 각성”, “싱싱하고 강렬한” “쾌미감”이 흘러넘친다. 진이는 민준식을 통해 자기가 살아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아프게 경험한다. 그리고 이 경험은 “남자와 여자와의 접촉” 즉 섹슈얼한 경험이었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성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이기도 했다. 진이가 이 경험을 “암컷을 일깨워준 기억”¹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후 진이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의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민준식과 성적인 만남을 거듭하면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자신의 몸에 완전히 체현한다. 다음과 같은 『목마른 계절』의 결말 부분인 4월에서 그 정점을 확인할 수 있다.

13) 위의 책, 13면.

14) 위의 책, 250면.

커다란 양재기에 더운 물을 옮겨 붓고 조심스레 옷을 벗고 그 속에 잠긴다. 그제서야 그녀는 완전히 성숙한 자기 자신을 본다. 그녀는 난리통에 그녀가 치른 온갖 곤욕과 기아의 기억에 아랑곳없이 무르익은 자신의 육체가 차라리 경이롭다.

놀랄 만큼 풍만해진 가슴은 그러나 언젠가 철수에게 내밀었던 영자의 가슴처럼 지나치게 드높지 않아 청순함을 지녔고 알맞게 토실한 살이 오른 사지는 매끄럽고도 나긋했다.

그리고 그렇게도 늘 오만하게 도사렸던 고개는 지금 얼마나 겸허하게 다소곳하려 드는 것일까?

무릎 꿇고 준식의 발을 어루만지던 때의 겸허함이 그녀 마음과 몸가짐 속에 늘 있었다.

그 난리 중에도, 그 비정과 공포와 기아의 나날 중에도 심신의 미숙은 완숙으로 어김없이 옮겨갔고 지금도 봄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¹⁵⁾

위의 인용문은 4월 피난지 교하에서 국군의 서울 환도 소식을 들은 진이가 서울로 돌아갈 채비로 목욕을 하는 장면이다. 진이는 자신의 벗은 몸을 보며 “난리통에 그녀가 치른 온갖 곤욕과 기아의 기억에 아랑곳없이” “완전히 성숙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놀라워한다. 그리고 이때의 성숙은 인용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무엇보다 ‘여성’으로서의 몸과 마음의 성숙이다. 진이의 ‘여성’으로서의 ‘완숙’은 마치 몸에 내재해 있는 자연적 시간의 흐름에 의해 저절로 일어난 일처럼 서술되고 있다. 진이의 여성으로서의 성숙이 봄이라는 꽃 피는 계절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진이가 스스로를 여성으로 처음 자각하는 시점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이며,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몸에 완전히 체현하는 시점은 서울 수복 직후이다.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는 성장과 생식이라는 자연의 시간에 한국전쟁 발발 이후 서울 수복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의 시간

15) 위의 책, 405-406면.

이 포함되게 만듦으로써, 진이가 역사의 시간을 더 강한 힘으로 뚫고 들어간 자연의 시간에 의해 궁극적으로 여성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목마른 계절』에서 진이의 '여성되기'는 어떠한 사회적 압력과도 무관한 자연적 성숙의 과정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계적인 시간 구조가 현재 '이야기하는 나'의 믿음 즉 성정체성은 사회문화적 구성물이 아닌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많은 것을 놓치도록 만든다. 만약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가 자신이 여성임을 틀림없는 사실 혹은 자연에 의해 주어진 당위로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자연의 시간이 흘러 여성의 몸으로 피어나게 되었던 시기를 굳이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추체험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과 역사의 시간을 위계적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여성 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그 자체로부터 현재 '이야기하는 나'가 사실 상 자연의 시간에 의해 자신이 여성이 되었다고 여기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역사의 시간에 의해 여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서 자연의 시간이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에 의해 '인공적으로' 고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목마른 계절』에서 자연의 시간에 의해 획득되었다고 간주되는 여성성이 확연하게 규범적인 여성성이며, 규범적인 여성성의 수용이 결혼 제도로의 진입 준비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민준식과의 성애 경험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여기게 된 진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과 결혼하는 것 역시도 자연스러운 일로 수용하려 한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진이가 자연의 시간이 흘러 성적으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격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여성적인 몸으로 만개한 진이는 “늘 오만하게 도사렸던 고개”를 “겸허하고 다소곳”

하게 숙일 줄도 알게 된다. 고집스럽고 도도한 성격에서 온화하고 순한 성격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변화는 “무릎 꿇고 준식의 발을 어루만지”는 겸허함 즉 가부장적 제도를 넘길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과도 같다. 이는 성정체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일이 사회적인 여성성 즉 가부장적 제도에 적합한 여성성을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된 것임을 보여준다. 서울 수복 이후 피난지 교화에서의 일화를 그리고 있는 아래 예문이 보여주듯이, 이 일련의 과정은 가부장적 결혼 제도로의 진입 준비와도 같다.

“아유 예쁘기도 하지. 어찌면 저렇게 잘생겼을까? 꼭 콩지 빠진 못생긴 암탉 틈에 한 마리 빼어난 학이 내려앉은 형상이 로구나”

진이는 처음에는 누구를 보고 그러는지 어리둥절했다.

방안을 두루 살펴도 모두 비슷비슷한 처녀들일 뿐 색다른 학은 없었다.

“우리 머느리도 저런 서울색시로 얻어알 텐데.”

의외로 빼어난 학은 진인가 보다. 진이는 이상한 흥분을 느낀다. 머느리감은 당치 않다손 치더라도 처음 들어보는 예쁘다는 소리가 싫지 않다.

조금은 과장이겠지만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것이 이쪽으로 쏠린 여러 처녀들의 눈도 솔직한 동경을 담고 있지 않은가.

자기가 예쁘다는 생각은 썩 자신이 없으면서도 썩 마음에 든다.

당장 거울로 달려가고 싶은 걸 참고 우선 내려다본 무릎 위에 두 손이 보야니 진이 눈에도 예쁘다.

멋없이 길기만 하던 손가락에 알맞게 살이 올라 부드럽고도 화사해보인다. 준식의 빨간 반지가 맞춤하니 맛을 듯한 예쁜 손, 미의 자각으로 진이는 즐겁게 설렌다.

늘 스스로를 밋다고 생각하려 들었고, 또 무슨 심사에서인지 예쁜 여자는 온통 머리가 비었다고 자신 있게 단정하려 들었던 여자꼴의 고집을 슬그머니 누그러뜨린다.

이왕이면 머리로 차고 예쁘기도 한 여자도 있을 법하다고, 그리고 그런 섹시야말로 민준식에 어울리는 신부감이 아닐까 고. 늙은 민준식과 어울릴 수 있는 아리따운 신부. 자기가 자꾸 소중스러워진다. 그리고 점점 해순을 닮은 사랑을 하고 있었다.

떨어져 있는 이를 위해 안달이나 조바심보다는 정성과 기도를 힘껏 발돋움시켜 먼 곳까지 뻗쳐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처성과도 같은 사랑을 닮아가고 있었다.¹⁶⁾

진이는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을 체현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예비 신부로서 인지하게 된다. 진이가 올케와 서울로 돌아가면서 방년 21세에 봄이기까지 하니 여태까지와 달리 “혼담”이 싫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이야기하는 나’는 자연의 시간을 도입함으로써 섹스, 욕망, 젠더가 인과론적으로 단단히 연결된 것이라고 독자를 설득하고자 하며,¹⁷⁾ 진이가 규범적인 여성성을 수용하고 이로써 가부장제에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는 왜 자연의 시간을 도입하면서까지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현재 ‘이야기하는 나’가 자연의 시간에 의해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획득되는 서사 뒤에 또 다른 여성 정체성 획득의 서사를 마련하고 있다는 데 먼저 주목해야 한다. 현재 ‘이야기하는 나’는 비록 자연의 시간에 의해 진이가 여성으로서 완숙했다고 서술하면서도 그 완숙이 남한 정부가 서울을 수복하고 피난지 교하의 “언덕 위 깃대박이에 태극기가 꽃”힌 이후에야 비로소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현재 ‘이야기하는 나’는 남

16) 위의 책, 397-398면.

17)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126면 참조.

한에 의한 서울 수복을 “다시금 여자가 아름다워지려는 세상이 돌아 온 것”¹⁸⁾으로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서술들은 현재 ‘이야기하는 나’가 진이의 여성으로서의 성장이 남한이라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본고는 이러한 서술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현재 ‘이야기하는 나’가 가부장제 안에 들어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경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에 자신을 완전히 동화할 수 없어 여성으로서 불안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국민이 되기 위해 ‘여성’이 되다

잘 알려져 있듯이 『목마른 계절』은 작가의 전쟁 체험 그중에서도 북에 의해 서울이 두 차례에 걸쳐 점령당했던 시절에 대한 경험을 소재로 씌어진 소설이다. 김영미가 자세히 논한 바 있듯 이 소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급작스럽게 전쟁을 맞는 바람에 피난을 가지 못했던 서울 주민들의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특히 채 남으로 피난을 가지 못했던 서울 주민들이 9.28 서울 수복 이후 환도한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도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했던 상황을 자세히 재현하고 있다.¹⁹⁾ 피난 가지 못했던 서울 주민들은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국민’으로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다. 본고는 『목마른 계절』에서 현재 ‘이야기하는 나’가 자신의 여성 정체성이 기원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불러오고 있음에 주목한다. 여성으로 살고 있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하여, 남한 국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보가 곧

18) 박완서, 앞의 책, 396면.

19) 김영미, 앞의 글, 2018.

생존을 보장받는 길이었다던 과거의 그때를 자신의 여성 정체성이 기원한 순간으로 호명하여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진이의 시야는 점점 어둡어둡해진다. 끝장이 주는 해방감을 만끽하기도 전에 무언가 또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뚜렷이 느낀다. 그것만이 뚜렷했지 다른 것은 자꾸 희미하고 그냥 흥분한 군중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있다.

누군가가 저놈 잡아라, 저놈이 빨갱이었다고 소리를 친다. 앞으로만 움직이던 군중이 갑자기 한 점을 향한 소용돌이가 되더니 일제히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를 부득부득 같고 발을 광광 구른다. 누군가가, “우리는 빨갱이처럼 살마을 죽여서는 안됩니다. 이성을 잃지 말고 그자를 경찰에 넘깁시다.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빨갱이나 할 것입니다” 하고 외친다. 이런 일들이 진이는 다 꿈속 같다. 다시 군중의 움직임에 몸을 맡긴다. 때로는 박수도 치며 만세도 부른다. 그러나 물에 뜬 기름처럼 군중으로부터 소외된 스스로를 느낀다.

자기는 결코 누구에게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한마디 “저 년이 빨갱이다” 하 기만 하면 지금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견고 있는 군중이 일제히 자기에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한국전쟁 발발 직후까지만 해도 진이는 완고한 공산주의자였다. 그러나 진이는 1차 인공치하를 직접 경험하면서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체대로 먹이는 데 무관심할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는 체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 수복 이전에 전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이는 자신이 인민군에 ‘부역’한 사실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벌을 받겠다고, 비겁하게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서울 수복 이후의 서울의 분위기는 이러한 다짐마저 순진하고 사치스러웠던 것으로 만든다. 피난 갔다 서울로 돌아온 군중에게 있어

20) 박완서, 앞의 책, 208-209면.

‘빨갱이’는 곧 비국민이고, 비국민은 결코 국민의 범주 안으로 편입될 수 없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거되어야 마땅한 대상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9.28 서울 수복 이후 진이는 자신이 인공치하에서 인민군에 협조했었다는 사실이 군중들에게 발각되어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진이는 서울 수복 이후 빨갱이로 지목된 사람들이 단순히 부역 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끌려가 구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목숨의 위협마저 느낀다. 이 상황에서 진이는 어떻게든 자신이 ‘부역’했다는 과거를 숨기고 무사히 국민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다. 국민이 되는 길이 곧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 된 것이다. 진이는 인민치하에서 자신과 같은 ‘빨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이 국군에 자원하여 출전함으로써 쉽게 “저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을 부럽게 바라본다. 그리고 여자라 국군이 될 수 없는 자신은 딱히 남한의 국민이라는 증명을 얻을 수 없어 안절부절 못한다. 인민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았을 때 진이가 남한 국민으로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피난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난을 가자는 진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이의 가족은 피난을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1차 인공치하 때 북한군에 의해 의용군으로 끌려간 오빠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이는 피난 가는 경찰 가족 당숙모에게 가족 중 자기만이라도 데리고 피난을 떠나달라고 부탁하나, 당숙모는 진이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며 대신 진이에게 “수단을 부려”보라고 말한다. “요즈음은 그저 군인편”이므로 “신랑감”을 고르라는 것이다.²¹⁾

이러한 당숙모의 ‘조언’ 즉 남한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군’을 “신랑감”으로 구하라는 조언은 진이에게 낯선 것은 아니다. 당숙모의 이런 조언을 듣기 얼마 전 진이는 길거리에서 당숙모의 아들이자

21) 위의 책, 254-255면.

자신의 사촌인 철수를 만나 철수가 곧 해병대에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다. 철수 옆에는 철수의 새로 사귄 애인 영자가 있었다. 진이는 영자의 화려하게 꾸민 외양을 보면서 영자가 자신에게 국민의 지위를 나눠줄 수 있는 철수를 유혹하기 위해 “두드러지게 높은” “젓가슴”을 ‘수단’으로 삼았음을 짐작한다. 그리고 아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사용해서 국민의 지위를 얻으려는 영자를 메스꺼워 한다.

영자. 아무리 생각해도 경박하고 메스껍다.

그런지 썩 잘못된 이름이야. ‘여자+0’ 여자, 즉 암컷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자. 진이는 자기의 이름 풀이가 스스로도 신통해서 만족해한다.

그러나 그녀 역시 집으로 들어가 어린 찬을 얼르고 안아주고, 혜순과 서 여사의 눈치를 살피는 일을 대강 끝내고 군대나 고향으로 떠난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고 나서, 완전히 혼자가 되면 거침없이 하나의 여자가 되어 남자를, 민준식을 갈구하는 것이었다. 누구보다도 암컷답게. 그가 그녀에게 남긴 거라곤 그녀의 암컷을 일깨워준 기억밖에 없었으니까.²²⁾

진이는 영자의 이름을 “여자+0”으로 풀이하면서, “썩 잘못된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진이는 이 이름이 영자가 “여자”의 몸 이외에는 “0” 즉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이가 영자의 이름을 이렇게 풀이하는 이유는 영자가 섹슈얼리티 외에는 다른 사회적 자원이 없어, 국민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국민의 지위를 얻어내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이가 영자를 “여자 즉 암컷”의 전형으로 여긴다는 것을 통해 이러한 영자의 생존 방식을 여성 일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이는 이러한 여성의 일반적인 현실

22) 위의 책, 249-250면.

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진이가 영자를 메스꺼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진이의 메스꺼움은 여성의 몸이 유한한 자원, 찬양되는 동시에 수치스러운 자원으로 간주되는 가부장제 사회²³⁾에 대한 메스꺼움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서술될 수 있는 것은 1970년대에 사는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가 1950년대 한국이라는 출발한지 얼마 안 된 근대 국가에서 여성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가부장제로의 진입이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경우 군인이 되고 출전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편에 속해 있는지 능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편에 속하는지 입증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여성이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인 가부장에게 속함으로써 스스로를 국민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출현 이후 남한에 사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국민 되기는 곧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1970년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연유 역시 여기서 비롯된다. 그런데 현재 '이야기하는 나'는 진이라는 과거의 자신을 대리하는 가상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과거 경험을 추체험토록 함으로써, 이 어쩔 수 없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그 한계 지점까지 거부하도록 해본다. 진이는 진(眞)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상황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울려오는 소리만을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는 진정성의 인물이다. 다시 말해 진이는 먹고 살기 위해 가부장제로 편입한다든가,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부장제로

23) 정희진,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권김현영·루인·정희진·한재운·〈참고문헌 없음〉준비팀,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220면.

편입한다든가와 같이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는 인물이자 오로지 자신의 신념만을 위해 사는 인물로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는 진이라는 인물과 대립되는 인물로 향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인물은 진이와 달리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이는 여성이다. 무엇보다 향이는 자신의 몸을 ‘자원’으로서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아름다운 여성이다.

“넌 그게 틀렸다는 거야. 여자가 모양을 내려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됐어? 좀 여자라는 자각을 가져 봐. 넌 통 여자 티가 안 나거든. 마치 중성 같아. 왜 그런지 알아? 그건 네가 여자라는 짜릿한 자각에 눈떠야 할 시기에 영똥하게도 무산계급이란 자각에 눈떴기 때문이야.”

향아가 다시 그녀답게 정색해온다.

“그리곤 주제넘게 무산계급인지 피압박계급인지를 위해 무엇인가 투쟁해야만 될 것 같은 열띤 사명감에 얽매어 있고 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어렵기만 한 걸까? 생각하기에 달린 거야. 세상 돌아가는 일 말고도 여자들의 번뇌는 얼마든지 있어. 분홍빛 번뇌 말야. 사랑의 번뇌를 갖는 거야. 여자가 구태여 어느 계급에 속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너는 얼마든지 예뻐 수 있는 젊은 여자만으로 충분한 거야. 네 마음먹기 나름이야. 좀 알아듣겠니?”

“향아야, 방향이 틀려. 오늘의 약속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장마레’였을 텐데.”

오늘 그녀들이 만난 건 장 마레 주연의 『비련』을 보기로 되어 있기에 한 소리였으나 진이의 야무진 목소리와 냉담한 눈매는 향아의 뜻하는 바에 완강한 거부를 나타내고 얼굴은 예의 예쁘지 않은 중성적인 고집 같은 것으로 굳어 있다.²⁴⁾

24) 위의 책, 25-26면.

위의 인용은 『목마른 계절』의 첫 장인 6월의 한 부분으로 진이와 향아 두 여성이 어떻게 대립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향아는 진이에게 “열띤 사명감”에 얽매어 살지 말고 예쁘게 꾸며 “돈 있는 남자를 구해 사랑하고 결혼”하라는 충고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적 삶의 방식에 거부감을 지닌 진이는 “야무진 목소리와 냉담한 눈매”로 “향아의 뜻하는 바에 완강한 거부”를 나타낸다. 지성과 자율성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진이는 향아를 비롯하여 남성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여성들에게서 우매함을 느낀다. 그러나 진이는 1차 인공치하를 거치면서 먹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면서 물질적인 윤택함을 무조건 천시했던 자신을 반성한다. 1차 인공치하가 끝나고 서울 수복 직후 진이가 향아의 집을 찾아가 맥락도 없이 몇 번이고 사과를 구하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진이는 향아가 아버지도 납치되고 약혼자도 북으로 떠나버렸지만 자신에게는 여전히 돈이 있으니 다 괜찮다는 말을 하자 격렬하게 화를 낸다. 진이는 물질적인 윤택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여전히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진이는 먹고 사는 것을 가부장 없이도 악착같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나 신념이 강한 진이도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서만 국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꺾이게 된다. 진이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한계치가 바로 여기인 것이다. 앞서 인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서울을 수복한 남한이 진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비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속출일 뿐이었다. 1차 인공치하를 거치면서 진이는 “빨갱이가 나쁘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²⁵⁾ 사실이라고 공산주의자 애인에게 당당하게

25) 위의 책, 340면.

말하는 반공주의자이지만, 남한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대나 희망도 품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다.²⁶⁾ 진이에게 북한이 최악이라면 남한은 단지 차악에 불과할 뿐이며, 진이는 최악과 차악이라는 선택지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살기 위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는 9.28 서울 수복 이후의 서울 상황 즉 한국이 근대국가로서 구성되기 시작한 첫 장면을 불러와 이 포악한 새 국가에서 여성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부장제로 편입해야 했음을 얘기하고 있다. 부유하지 못하여 선택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소속’이 없어지는 일이었던 것이다. ‘소속’이 없어진다는 것은 생활을 꾸려나갈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일임은 물론, 죽음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이 무방비 상태로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목마른 계절』은 ‘국민’임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곧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남한 사회에서 여성이 생존 그 자체를 위해 가부장제로 들어가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진이는 경찰 가족인 당숙모에게도 거절당하고, 부자 단짝 친구 향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집에는 가부장인 오빠마저 없는 상태가 되어 피난을 가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결국 영자와 같은 식으로 국민의 자격을 얻고자 한다.

“여봐, 우리 집찾기 연극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자구.”

진이는 문득 가로수 밑에서 한 덩이로 엉켰던 철수와 영자의 모습을 생각하며 영자 같은 높다란 젓가슴이 자기에게 없

26) 최정호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 있어 반공주의는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닌 경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얘기한다. (최정호, 『무사상(無思想)의 사회, 그 내력과 구조』, 『계간 사상』 제1호, 1989, 44면.) 이 세대에게 있어 반공주의는 교육이나 주입의 결과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고는 박완서가 소설에서 보여주는 반공주의가 위와 같은 세대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음을 사나이에게 미안해한다.

그녀는 전신주에 몸을 기대고 가슴을 뿔 수 있는 대로 크게 내민 자세로 사나이를 기다린다. 그녀의 몸이 전신주와 사나이 사이에 꿈쩍 못하게 끼고 드디어 사나이의 얼굴이 다가오자 눈을 감는다.

가슴이 크게 울렁댄다. 장교, 피난 보따리, 군용차 그런 것들로.

먼저 목덜미에 사나이의 치끈한 입술을 느끼며 못 견디게 역겨운 체취를 맡는다. 반사적으로 사나이를 밀치며 크게 뜬 눈에 공포롭게 사나이의 모자의 계급장이 들어온다. V자 모양이 세 개 겹쳐 있었다.

그녀는 더욱 거칠게 사나이를 밀친다.

“왜 이래? 곧잘 나가다가”

초조와 노여움으로 사나이의 모양이 보기 싫게 일그러진다.

“싫어요. 놓으세요. 장교인 줄 알았어요.”

“뭐, 뭐라고 순진한 줄 알았더니 갈보년이었구나. 재수 없다, 쌍.”

사나이의 손이 진이의 뺨에서 두어 번 울리고 먼저 사나이가 갔다. 뺨의 아픔은 진이를 어처구니없는 망집에서 일깨우고, 찬 겨울바람은 역겨운 사나이의 체취를 날렸다.²⁷⁾

진이는 서울 주민들이 피난 준비로 어지러운 한 때에 자신을 피난 보내 줄 국군 그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장교를 찾아 길거리로 나서며 정말 한 군인을 찾아 유혹에 성공한다. 그러나 그 국군은 알고 보니 장교가 아니었다. 그래서 진이는 더 이상 사나이의 “역겨운 체취”를 참지 않고 자신의 몸에 키스 중인 그를 밀쳐낸다. 국군은 이런 진이에게 “갈보년”이라고 화를 내며 뺨을 때리고, 뺨을 맞은 진이는 “어처구니없는 망집에서 일깨”워진다. 이 경험을 계기로 진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여성’이 되는 것 즉 가부장제로 편입하는 것을

27) 박완서, 앞의 책, 259면.

거부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남한이라는 국가를 떠날 수 없다면,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이들은 최소한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가부장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여성은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가부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은커녕 사회적 착취의 대상으로 쉽게 내몰렸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²⁸⁾

진이가 가부장제로 들어가기로 '선택'하게 되면서 진이가 겪는 2차 인공치하의 성격은 1차 인공치하의 성격과 달라진다. 진이에게 1차 인공치하의 공산주의자들이 먹을 것의 중요함을 무시하고 오로지 관념적인 사상만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이들이었다면, 2차 인공치하의 공산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예술 공연에서 투박한 노동복장을 한 우락부락한 여성 노동자가 예쁜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가녀린 발레리나를 망치로 때려잡는 무용을 보면서 감동하며 박수갈채한다. 공산주의가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 추구를 무시하는 체제로 설정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은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 추구를 허용하는 사회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남한이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 추구를 허용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남성들은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 갈채를 보내는 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는 사회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나 여기에 반영된 남한이라는 사회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남성에게 선

28) 이에 대한 연구서로 이임하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책과함께, 2010), 이재경 외 『조국 근대화의 젠더 정치』(아르케, 2015), 정진성 외 『한국현대여성사』(한울, 2004)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 시민의 권리가 여전히 남성 시민의 권리로부터 파생되고 있음을 분석한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황정미, 『여성 사회권의 담론적 구성과 아내·어머니·노동자 지위』, 『페미니즘연구』 제7권 1호, 2007; 노혜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빈곤』, 『페미니즘연구』 제13권 2호, 2013 등.

택되고 가부장제에 들어감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전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불평등한 사회이다. 그러나 진이는 국민의 자격을 얻기 위해 결국 이 사회구조 속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여성'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곧 현재 '이야기하는 나'가 여성으로서 살게 된 연유이기도 하다.

4. 행위주체성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타협

현재 '이야기하는 나'는 가부장제에 들어와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일종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라고 여기면서 수치심을 느낀다. 자신의 선택이 생존 그 자체를 보장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해도, 결국 물질적 욕망에 따른 것이라고 여기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심이 현재 '이야기하는 나'로 하여금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설명하라는 명령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한다.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택을 내린 행위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김에 따라 그러한 의도를 지니지 않은 순수한 행위들을 도덕적인 행위라고 여긴다. 『목마른 계절』의 민준식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도덕성이다. 민준식은 학벌과 잘생긴 외모, 양반 가문 출신의 부유한 사업가 집안이라는 조건이란 조건은 모두 갖춘 남자이다. 그러나 민준식은 신념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완고한 의지 때문에 이 모든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미련 없이 버린다.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는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가부장제에 들어가야 했던 자신의 삶과 비교하여 민준식의 삶을 도덕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진이가 민준식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이유 역시 단순히 성적 접촉에서 오는 감각적인 쾌미감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민준식이 "여자 따위에

속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지닌 이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현재 ‘이야기하는 나’가 보여주는 민준식에 대한 동경과 사랑을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적 틀에서 해석한다면, 이는 순응, 억압, 종속, 타협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비주체성의 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래 예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진이는 민준식에 대한 동경과 사랑 역시도 조건부라고 얘기한다.

“작은아씬 용케도 오빠의 죽음에 훌륭한 주석을 달아주는군요.”

“언니, 전쟁은 정말 싫어. 내 생전엔 안 겪었으면.”

“정말 그래요. 작은 아씬 아직 미혼이니 좋은 사람 만나서 잘살아야 할 텐데.”

“말들이 이번 난리에 남자들이 하도 많이 죽어 여자 세 트럭에 남자 한 명꼴이라니 어디 시집 가겠수?”

“작은아씬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전쟁 전에.”

“있었어요.”

“지금 어디 있죠?”

“아마, 북쪽에.”

“저런 끌려갔군요.”

“아뇨. 그는 스스로 원해서 인민군이 됐어요. 그는 오빠와는 달리 이번 난리에 너무 쉽게 자기편을 선택했죠. 그것을 후회한 나머지 자기편을 배반하기는 좀 어렵게 하려는 꾀예요. 그가 뭐랬더라? 사나이가 스스로 선택한 자기편을 배반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소린지. 아무튼 그는 돌아올 거예요. 아마 지금쯤 어디 돌아와 있을지도 모르죠. 하다못해 포로가 돼서라도.”

“그럼 작은아씬 그걸 믿고 언제까지나 기다릴 참이에요?”

“언제까지랄 순 없지만……. 지금도 그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깊이 아파요. 또 그에게 안겼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기쁨을 주거든요. 언젠가는 안 그럴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그가 안 돌아오고, 그런 날도 안 오면?”

“안 그럴걸요, 아마. 그렇지만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그가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대로 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는 서 여서가 골방에 갇힌 채 오늘부터 반 평의 땅 대신 며느리가 그녀에게 안겨준 베개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²⁹⁾

2차 인공치하에서 진이는 민준식과 현저동 빈집에서 마지막으로 밀회를 갖고 헤어진다. 둘이 아무도 모르게 남쪽으로 도망가 살자는 진이의 제안을 민준식이 단번에 거절했기 때문이다. 진이는 서울로 혼자 돌아왔음에도 북으로 떠난 민준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그와 결혼할 꿈을 꾸기도 한다. 올케는 그런 진이에게 언제까지 민준식을 기다릴 것이냐고 묻는다. 진이는 그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한다. 올케는 그가 안 돌아온다는 게 확실시 될 때도 기다릴 것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진이는 “안 그럴걸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라고 대답한다. 이와 같은 진이의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대답에서 우리는 진이가 민준식이라는 귀족적인 인물의 도덕적 삶의 태도를 낭만적으로 꿈꾸기는 하지만 이를 현실에서도 고지식하게 고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진이의 ‘행복’에 대한 추구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욕구보다도 강하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제일의 목표로 두고 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나가려는 진이의 삶의 태도는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야 ‘행복’이라는 단어를 통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전쟁 중의 진이의 여러 ‘선택’들을

29) 박완서, 앞의 책, 432-433면.

가능하게 했던 지침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해왔다. 현재의 '이야기 하는 나'는 공산주의자였던 진이가 전향했던 일,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속하기로 결정했던 일, 가부장제에 진입하기로 결정했던 일, 피난을 가기로 결심했던 일, 민준식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던 일 등을 단순히 생존을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결정들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있지만, 이 결정들은 현재의 '이야기 하는 나'가 꼼꼼하게 그 결과를 계산한 뒤에 내린 '선택'들이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주체성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행위주체성(agency)'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행위주체성은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가면서 선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사건이나 자원에 대하여 통제를 발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³⁰⁾ 따라서 행위주체성은 유무의 차원이 아니라 정도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³¹⁾ 행위주체성은 단순히 자원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측정되지 않으며, 자원을 얼마나 능히 통제함으로써 행위나 선택, 자유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가에 따라 측정된다. 이때의 자원이란 단순히 물질 자원을 가리키지 않으며 인적·사회적 자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진이는 비록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진이가 전쟁 중에 내렸던 일련의 결정들은 행위주체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즉 물질·인적·사회적 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려진 것들이었다. 이는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가 국민으로서 사는 삶이 비국민의 삶보다 행위주체성이 크고, 가부장제에 진입한 여성의 삶이 가부장제에 진입하지 않는 여성의 삶보

30) 노혜진, 『여성 행위주체성(agency)에 관한 생애단계별 고찰 - 빈곤개념의 확장』, 『여성연구』 제80권 제1호, 2011, 275면 참조.

31) 노혜진, 앞의 글, 280면.

다 행위주체성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는 한국전쟁에 의해 가부장을 잃은 여성들이 얼마나 신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로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 때 많은 남성들이 전사, 납치 혹은 학살 등등에 의해 죽음을 맞았으며, 가장을 잃은 여성들이 생계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전쟁미망인들은 행상, 장사, 바느질, 날품팔이 등 시장의 비공식영역에 진출하여 생계 벌이를 했다. 그러나 아무리 고되게 노동을 해도 이들의 벌이는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기에 항상 부족했으며 따라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가장 없이 밖에 나와 일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쟁미망인들은 주위로부터 항상 성적 '의심'의 시선을 받았다. 이들의 삶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특히 전후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 그 자체가 여성들에게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유용한 '자원'의 형태로서 인지되었다. 가부장이 있어야 물질적으로 덜 궁핍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회적 성원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는 진이로 하여금 바로 이와 같은 물질·인적·사회적 '자원'의 확보를 위해 가부장제에 진입하도록 만든다. 이 시대에 여성이 사회적 보장, 정치적 참여, 자원에의 접근 및 통제 정도 등을 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에 편입하지 않는 것보다 편입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던 것이다.³²⁾

32) 테니즈 칸디요티는 가부장제의 구체적인 제약 속에서 여성들이 세우는 일종의 전략을 '가부장적 교섭'이라는 개념으로써 설명한다. 여성은 가부장제 및 남성 중심적/온정주의와 '홍정한다'. 칸디요티는 '가부장적 교섭'이 여성의 성별화된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분석함을 통해 여성의 성별화된 주체성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구체성으로서의 가부장제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하다고 말한다. (테니즈 칸디요티, 『가부장제와 교섭하기』, 낸시 홈스트롬 엮음, 유강은 옮김,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퍼다』, 메이데이, 2013.

이를 염두해두어야만, 현재 '이야기하는 나'가 『목마른 계절』에서 왜 자연의 시간으로 하여금 역사의 시간을 포섭하도록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얘기했듯이 진이는 길거리에서 국군과 만난 것을 계기로 여성 국민으로서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 그러나 진이는 상황에 의해 수동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여성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피난지 교하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나듯이 진이는 자신의 여성적인 아름다움에 도취되기도 한다.³³⁾ 이는 진이가 국민이 되기 위해 여성이 될 것을 요구하는 사회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 유용한 사회적 자원을 놓고 국가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 '홍정'한 결과로 여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야기하는 나'에 의해 인공적으로 고안된 자연의 시간은 바로 여성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에 의해 성정체성이 주어지며 여성에게 부과되는 각종 역할과 부담들 역시 당위적인 것임을 믿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 가부장제를 내면화해서가 아니라, 행위주체성을 넓히는 대가로 여성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좀 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고안된 시간인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박완서의 두 번째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에서 주인공 진이가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

234-235면 참조.)

33) 해방 이후 남한 혹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여성'이 되기를 '선택'하는 과정을 다룬 또 다른 소설가로 손소희가 있다. 그러나 손소희 소설에서 가부장제에 진입하여 '여성'이 되는 인물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수치심 및 죄의식을 강하게 갖는다.

리고 이를 통해 여성의 주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서 '행위주체성'을 제시한다.

『목마른 계절』의 서사는 '자연'과 '역사'라는 두 가지 시간을 통해 구조화된다. 진이는 이 두 시간 중 자연의 시간을 통하여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진이가 여성으로 변모하게 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역사의 시간이다. 진이는 성적으로 성숙할 나이가 되어서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1950년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부장제로 들어가 '여성'이 된다. 한국 전쟁 당시의 여성들은 자신의 아버지나 오빠, 남편이 국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만 스스로를 국민으로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의 시민권은 가부장제에 의해 보장되므로, 진이는 가부장제에 저항한다거나 가부장제의 바깥을 지향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이는 주체성을 포기한 것일까? 이와 달리 진이는 가부장제에 속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물이다. 본고는 이러한 '전략적 타협'으로부터 진이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진이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있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려고 하며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더 잘 통제하려 한다. 이에 진이는 더 많은 물질·인적·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고자 한다. 진이에게 있어 시민권 획득을 위한 가부장제로의 진입 역시 이와 같은 행위주체성(agency)의 확대 수단이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문헌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2012.

2. 논문 및 저서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국어국문학』 제133호, 2003.

권김현영·루인·정희진·한채윤·<참고문헌 없음> 준비팀,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220면.

권명아, 「박완서 :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 제45호, 1998.

_____, 「박완서 문학 연구 - 역적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제23호, 1994.

김경연·전승희·김영혜·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여성』 제2호, 창작사, 1988.

김미영, 「박완서의 성장 소설과 여성 주체의 성장」, 『한중인문학연구』 제25호, 2008.

김영미,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서울에서의 한국전쟁 체험의 의미 - 『목마른 계절』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4호, 2018.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수행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은경,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양상: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55호, 2010.

김은하, 「애증 속의 공생, 우울증적 모녀관계」, 『여성과사회』 제15호, 2004.

김정은, 「박완서 전쟁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노혜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빈곤」, 『페미니즘연구』 제13권 2호, 2013.

_____, 「여성 행위주체성(agency)에 관한 생애단계별 고찰 - 빈곤 개념의 확장」, 『여성연구』 제80권 1호, 2011, 275-280면.

배경열, 「여성의 정체성 찾기: 박완서 작품론」, 『한국학논집』 제34호, 2007.

- 신수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동대문시장의 젠더정치학과 전후 중산층 가정의 균열」,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1호, 2016.
- _____,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PX 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 2호, 2016.
-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2011.
-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43호, 2018, 26-27면.
-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 이정희, 「오정희 · 박완서 소설의 근대성과 젠더 의식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임규찬, 「박완서와 6.25체험-『목마른 계절』을 중심으로」, 『작가세계』 제47호, 2000.
- 전승희, 「여성문학과 진정한 비판의식」, 『창작과비평』, 1991년 여름호.
-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1호, 2016.
- 조미숙, 「박완서 소설의 전쟁 진술 방식 차이점 연구-『엄마의 말뚝』, 『목마른 계절』, 『나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의 오빠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4호, 2007.
- 조혜정,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 『여성해방의 문학』, 평민사, 1987, 41면.
- 최선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 자본주의 양상과 극복의 가능성」, 『현대소설연구』 제51호, 2012.
- 최정호, 「무사상(無思想)의 사회, 그 내력과 구조」, 『계간 사상』 제1호, 1989, 44면.
- 최지영, 「자전적 이야기의 시점과 그 언어적 실현」, 『독어학』 제31집, 2015.
- 황정미, 「여성 사회권의 담론적 구성과 아내 · 어머니 · 노동자 지위」, 『페미니즘연구』 제7권 1호, 2007.
- Butler, Judith,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126면.
- Holmstrom, Nancy ed., 유강은 옮김,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메이테

이, 2013, 234-235면.

Marshall, T. H., 김윤태 옮김, 『시민권과 복지국가』, 이학사, 2013.

Mohanty, Chandra Talpade, 문현아 옮김, 『경계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2005,
43 · 55면.

Pateman, Carole, 이충훈 옮김,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2001.



<Abstract>

Why I became a ‘woman’

Han, Kyung-Hee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process of acquiring self-identity as a woman in Park Wan-seo's novel “Thirsty Season”. And I tried to suggest ‘agency’ as another concept that can explain the subjectivity of women.

In “Thirsty Season” Jin can be transformed into a woman by two times, ‘nature’ and ‘history’. The narrator organizes the narrative as the time of ‘nature’ exercises the ultimate influence in transforming Jin as a woman. But in fact, Jin could be transformed into a woman by the time of history. She did not become a woman because of the age of sexual maturity, but because of inevitable social situation that must be incorporated into patriarchy. In the 1950s, Women were given only a way to belong to male patriarchy for proving citizen.

However, the fact that Jin entered the patriarchy does not mean that she gave up the subjectivity. Of course, she would not resist the patriarchy or get out of the patriarchy. Jin makes her life in a way that can expand her agency. Although she had only limited opportunities, Jin wants to possess more material, human and social resources and to have more power to control it in order to broaden the scope of action. In the 1950s, if women did not enter patriarchy in the Korean society, she could not have an access to resources. So Jin would make a choice

to pay for becoming a woman for wider agency. This kind of subjectivity cannot be grasped from the ‘have or not’, but ‘level of degree’

Key words: women, citizenship, patriarchy, agency, Korean War

투 고 일 : 2018년 8월 25일 심 사 일 : 2018년 8월 25일-9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9월 24일